

대학생 개인상담에서 조기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안 이 환 심 혜 숙[†]

부산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인상담에서 일어나는 조기종결 현상과 관련된 내담자와 상담자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종결의 형태를 예측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특성 둘째, 조기종결 내담자와 합의종결 내담자간의 중요한 심리특성의 차이점 셋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과 상담자의 특성과의 관계성 넷째, 조기종결 현상이 더 빨리 일어나는데 작용을 하는 내담자의 심리특성을 연구문제로 삼았으며 마지막으로, 자유기술문 분석을 통한 조기종결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대구, 전북, 서울 소재의 대학교 학생상담실을 자발적으로 찾았던 내담자들 가운데 합의종결한 내담자 50명과 조기종결한 내담자 43명을 합하여 총 93명이 선발되었다. 조기종결 내담자 및 합의종결 내담자들에게는 다섯 가지 수준의 심리특성들이 측정되었다. 합의종결 및 조기종결에 공통으로 개입된 상담자는 총 23명이었다. 상담자에게는 인구학적 변인과 상담자의 특성들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상담의 종결형태 결정요인은 내담자의 나이, 상담자의 상담유형, 그리고 내담자에 의한 상담자 평가였으며, 합의종결과 조기종결 내담자 집단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은 상담동기와 상담자에 대한 평가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상담자의 특성과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과의 관계, 조기종결의 시점이 빨라지는데 작용하는 내담자의 심리특성과 조기종결의 직접적인 이유 등이 규명되고 논의되었다.

주요어 : 조기종결, 합의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 상담자의 특성, 상담자평가, 상담동기

안이환과 심혜숙은 부산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심 혜 숙, (609-735) 부산시 장전동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전화 : 051-510-2626 E-mail : sim0585@hanmail.net

20세기 초반과 중반의 심리상담은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한 상담접근이 주류를 형성하였으므로 이때의 내담자는 정신분석에 입각한 상담자에게 심리상담을 받았던 소수의 내담자로 한정되어 있었다(Weiss & Sampson, 1986). 그러나 심리상담의 이론적 발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의료혜택의 영향으로 상담이 대중화 되면서 내담자의 계층도 다양해졌고 그 수도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약속된 상담회기에 내담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담이 종결되는 조기종결 내담자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상담의 종결에 관한 연구(Baekeland & Lundwall, 1975; Garfield, 1990)에 의하면 외래 내담자의 조기종결 비율이 30-60%에 이른다고 한다.

높은 비율의 조기종결 현상은 대학 상담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 상담 기관에서의 조기종결 비율은 19-25%에 이른다고 한다(Epperson, 1981). 더구나 국내의 연구 결과를 보면 1990년 한해 동안 'A'대학상담소의 전체 내담자 641명중 1회기 상담종결자가 전체의 60.7%, 2회기 종결이 13.2%라고 한다. 즉, 2회기 이내의 상담종결이 전체 내담자수의 73.9%(475명)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비율 속에는 심리검사의 해석, 진로, 학업, 유학상담과 같은 단회로 끝나는 상담을 일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대학의 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조기종결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학 상담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최해림, 심홍섭, 1991).

이렇게 상담기관에서 조기종결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조기종결에 대한 해석과 관점, 그리고 조기종결이 상담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조기 종결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상담기간을 기준으로 계획된 회기 수를 다 채우지 못한 내담자, 1회기 면접 후 나타나지 않

는 내담자, 2회기 면접 때 상담실을 찾아오기로 약속은 했지만 나타나지 않는 내담자 등 상담의 회기 수에 따라 조기종결을 정의하였다(Epperson, 1981). 그러나 Beck 등(1987)은 합의로 끝난 상담의 종결이라도 4회기 이하를 조기 종결로 보았으며, Saltzman(1984)은 9회기 미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를 모두 조기 종결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회기 수에 관계 없이 상담자의 관점에서 종결을 준비하는 내담자의 준비된 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상담자의 평정을 조기종결의 기준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Beck 등(1987)의 입장을 수용하여 4회기 이하에서 상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내담자를 조기종결 내담자로 간주하였다.

조기 종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상담의 성공이라는 관점과 상담의 실패라는 두 가지의 관점이 대립되고 있다. 첫째, Silverman과 Beech(1979)는 조기 종결 내담자에 대한 추수평가에서 내담자가 상담을 그만둔 이유, 현재의 적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조기 종결이 반드시 상담의 실패라고는 말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내담자가 상담을 중단한 실제적인 이유의 많은 부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Budman & Gurman, 1988). 이런 관점은 최근에 나타난 단기상담(brief therapy)적 접근과 단회상담(single-session therapy)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는 단기간의 상담이 상담의 효율성, 상담의 비용문제,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바탕을 둔 것이다(Talmon, 1990). 이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내담자가 첫 면담 때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짧은 회기 수의 상담으로도 상담의 효과를 충분히 높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내담자는 1회기, 혹은 4, 5회기 미만으로 상담을 종결해도 괜찮다고 본다. 이런 단기상담자들은 많은 상담자들이 정신

분석학적 장기상담 지향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상담만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기상담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Orlinsky, Grawe, 그리고 Parks(1994)은 메타분석의 결과 상담비, 상담기간, 상담계획 등의 변인들이 상담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면서 상담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담의 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관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는 조기 종결이 비록 내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상담의 실패라기보다 내담자의 목표 달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조기 종결을 상담의 실패로 보는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Baekeland와 Lundwall(1975)은 조기 종결과 관련된 330개의 문헌을 연구한 결과 조기 종결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방어적이고, 솔직하지 못하며, 때때로 병리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조기 종결한 내담자들은 예후가 좋지 않으며, 합의 종결한 내담자들 보다 개인적으로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며 불안정한 심리 특성을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 부정적으로 나타난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 때문에 이들은 조기 종결을 상담의 실패로 간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담자들이 상담과정에 대한 회의와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사기 저하 등 심리적 고통을 많이 표현한다고 하였다(Epperson, 1981).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담을 받고 난 이후라도 내담자가 일방적으로 종결한 경우 적절하게 합의 종결한 내담자들보다 적응의 수준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조기 종결이 비록 내담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내담자 자신의 문제 해결력 부족과 적응력의 감소에서 나타나는 상담의 실패라는 관점을 보여 주었다.

종결에 관한 이 같은 논쟁들이 일어나면서 조기종결에 대한 연구가 또한 많아졌다. 조기 종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된 분야는 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특성이었다(Saltzman, 1984). 이러한 연구와 함께 Bergin과 Garfield(1994)는 조기 종결과 관련된 연구 변인들이 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구학적인 변인, 내담자의 심리특성 변인, 상담자 변인과 내담자 변인의 관계성에 대한 것이 많았다고 하였다. 상담자 변인으로는 상담자의 성별, 인종, 상담유형, 평균경험 년 수, 학위 종류 등이, 내담자의 인구학적인 변인으로는 성별, 종족, 나이, 교육수준, 사회계층, 결혼유무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Saltzman(1984)의 연구 이후 10년이 지난 Bergin과 Garfield(1994)의 보고서에는 조기종결의 변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 해 보면 상담자 변인으로는 1) 나이와 성별, 2) 전문성, 3) 상담경험, 4) 상담유형(접근방식) 등이 중요한 연구 변인이었으며, 내담자 변인으로는 1) 나이와 성별, 2) 상담동기와 기대 3) 자존감, 4) 상담자 평가(상담동맹), 5) 내담자의 대인관계표상, 6) 모호성에 대한 인내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변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자의 특성으로는 상담자의 전문성(Sue, Zane, & Young, 1994), 상담경험(Orlinsky & Howard, 1980), 정신역동적 상담의 해석적 형태(Piper, Joyce, McCallum, & Azim, 1998), 상담자의 촉진적인 대인관계 유형(Orlinsky et al., 1994) 등이 조기종결 현상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있다. 내담자들의 심리적 특성 가운데에는 특히, 상담동기(Kahn, Kelly, & Coulter, 1996; Hill et al., 1993). 자존감(Angle & Goodyear, 1984), 내담자에 의한 상담자 평가(Acosta, 1980), 대인관계 표상(Luborsky, Barber, & Crits-Christoph, 1990), 모호성에 대한 인내(Heilbrun, Jr., 1982b) 등이 조기종결과 관련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국외의 연구 외에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 상담기관에서도 조기종결의 원인 규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만일, 조기종결이 상담의 부정적인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면 상담자는 원인 규명을 통해서 상담자로서 상담에 대한 효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의 상담기관에 종사하는 상담자의 다양한 특성과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내담자들의 심리특성이 조기종결 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던 조기종결의 이유가 부정적인 상담성과 때문인지를 밝혀봄으로써 대학상담기관의 상담자들이 조기종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상담을 할 때 조기종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조기종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내담자에 대한 효율적인 처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조기종결에 대한 내담자-상담자간의 특성과 조기종결에 대한 현상을 규명함으로써 상담자를 위한 교육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대구(경북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전북(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서울(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소재의 대학상담실을 이용하였던 내담자 93명(조기종결 43명, 합의종결 50명)이 표집되었다. 그때 조기종결 내담자와 상담을 했던 상담자는 23명이었으며, 합의종결 내담자와

상담을 했던 상담자 18명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였다. 한 명의 상담자가 조기종결과 합의종결 내담자를 중복 상담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상담자는 23명이었다.

내담자

합의종결한 내담자의 경우 남자는 24명, 여자는 26명이었다. 이들의 나이 평균은 22.76세(SD 3.02)였으며, 3학년이 전체의 36.0%를 차지하여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기종결한 내담자의 경우 남자는 18명, 여자는 25명이었다. 이들의 나이 평균은 21.34세(SD 1.99)였다. 2학년이 전체의 37.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합의종결한 내담자가 조기종결한 내담자보다 평균 1살이 많았다.

상담자

합의종결을 했던 내담자를 상담한 상담자는 18명(남 4, 여 14)으로 그들의 학력수준(학부졸업-석사졸업 11명, 석사이상-박사후 2년 7명)과 상담경험년수(1-4년 9명, 5-9년이상 9명), 그리고 상담유형(정신역동 11명, 인본주의 4명, 인지접근 1명, 절충주의 2명) 및 그들의 나이평균은 29.88세(SD 6.11)였다. 이에 반하여 조기종결한 내담자를 상담했던 상담자는 23명(남자 8, 여자 15)으로 그들의 학력수준(학부졸-석사졸업 14명, 석사이상-박사후 2년 9명)과 상담경험년수(1-4년 13명, 5-9년이상 10명), 그리고 상담유형(정신역동 12명, 인본주의 6명, 행동접근 1명, 절충주의 2명, 기타 및 무반응이 각각 1명) 및 그들의 나이평균은 32.39세(SD 7.04)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3월까지 14개월 동안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학생상담실

에서 상담을 받았던 대학생 내담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내담자를 상담한 각 대학의 상담자가 합의종결 내담자와 조기종결 내담자로 분류하여 연구자가 보낸 우편물(설문지)을 각각의 내담자들의 집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것을 상담자가 회수하여 다시 본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우편물이 회수되었다.

측정도구

상담동기 검사

상담을 받는 내담자의 상담동기를 측정(Client Motivation for Therapy Scale: CMTS)하기 위한 상담동기 측정은 Pelletier, Tuson, 그리고 Haddad(1997)가 개발한 24 문항으로 구성된 7점 평정척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는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의 성질상 무동기(4문항)를 제외한 20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3이었다.

자존감 검사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가하는 자아상을 자존감의 반영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Rosenberg(1965)의 척도를 윤유경(1996)이 번역하여 사용하였던 것을 본 연구자가 사용하였다. 총 1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평정척도이다.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이며 문항 내적합치도는 .87이다. 본 연구자는 11문항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5점 평정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68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도 높다.

상담자 평가 검사

상담자 평가 질문지(Counselor Rating Form-Short: CRF-S)는 상담자에게 지각된 전문성과 신뢰성, 호

감을 내담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Corrigan과 Schmidt(1983)의 상담자 평가 질문지를 오경희(1986)가 번안하였다. 이 척도는 상담자에게 전문성, 신뢰, 호감을 열두 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각 형용사는 단일극의 7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1이다. 본 연구자는 열두 개의 형용사 가운데 무선적으로 6개를 선택하였으며 5점 평정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9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이다.

대인관계 검사

대인관계 질문지는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Sherbourne와 Stewart(1991)의 사회적 지지 조사표와 DeLongis, Folkman, 그리고 Lazarus(1988)가 사용한 방법을 기초로 하여 김정희(1992)가 제작한 척도이다. 본 연구자는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 영역과 내담자가 대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친한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 영역을 측정하고 있는 28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평정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5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은 것이다.

모호성에 대한 인내 검사

모호성에 대한 인내 검사는 개인이 애매 모호한 상황을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척도는 Bunder(1962)가 개발한 16문항을 장재윤(1993)이 번안하여 13문항을 5점 평정척도로 사용하였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52였다. 본 연구자는 전체 문항 및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47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은 애매 모호한 상황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다.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양방 검증), 일원변량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외에 조기종결 내담자의 조기종결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자유기술 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종결 형태(조기종결, 합의종결)를 예측하기 위하여 상담자의 특성과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로지 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담자의 특성 중에는 상담자의 상담 유형($W=5.379, p<.05$)이, 내담자의 특성 중에는 나이($W=3.825, p<.05$)가 상담의 종결 형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 과

상담자의 특성과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의 종결 형태

상담자의 특성과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의

조기종결 내담자와 합의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

조기종결 내담자와 합의종결 내담자의 심리특 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기종결 내 담자와 합의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에 대한 차이

표 1. 종결 형태를 예측하기 위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유 형	독립변인	B	S.E.	df	Exp(B)	W	p
상담자 (N=41)	성별	.874	.744	1	2.395	1.379	.240
	나이	-.049	.056	1	.952	.765	.382
	학력	-.193	.214	1	.825	.813	.367
	상담년수	-.034	.130	1	.967	.067	.796
	상담유형	.448	.193	1	1.566	5.379*	.020
	성격	.474	.605	1	1.606	.613	.434
내담자 (N=93)	성별	-.300	.622	1	.741	.233	.629
	나이	.237	.121	1	1.268	3.825*	.050
	성격	-.163	.385	1	.850	.179	.672
	상담동기	.015	.023	1	1.015	.423	.516
	자존감	-1.228	.780	1	.293	2.482	.115
	상담자 평가	.980	.551	1	2.665	3.167	.075
	대인관계	-.749	.576	1	.473	1.690	.194
	모호성에 대한 인내	-.820	.886	1	.441	.855	.355

Nagelkerke $R^2 = .505$

주. * $p<.05$

표 2. 조기종결 내담자와 합의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간 차이검증

내담자	심리특성	집 단	n	M	SD	t	p
조기종결 및 합의종결 내담자	상담동기	합의종결	50	64.72	15.56	2.122*	.037
		조기종결	43	58.16	13.99		
	자존감	합의종결	50	3.24	.39	-1.078	.284
		조기종결	43	3.33	.43		
	상담자 평가	합의종결	50	4.05	.49	2.887**	.005
		조기종결	43	3.68	.72		
	대인관계	합의종결	50	3.48	.54	.251	.802
		조기종결	43	3.45	.57		
	모호성에 대한 인내	합의종결	50	3.33	.34	-.006	.995
		조기종결	43	3.33	.38		

주. 양방향 검증
* $p < .05$ ** $p < .01$

검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내담자의 상담동기에서 합의종결 내담자($M=64.72$)와 조기종결 내담자($M=58.16$)의 두 집단간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t=2.12, p<.05$)가 있었다. 그리고 상담자에 대한 평가에서 합의종결 내담자($M=4.05$)와 조기종결 내담자($M=3.68$)의 두 집단간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t=2.88, p<.01$)가 있었다. 그러나 자존감, 대인관계, 모호성에 대한 인내에서 두 집단간 평균점수의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합의종결 내담자는 조기종결 내담자 보다 상담에 임하는 동기수준이 높았으며 또한, 상담자를 평가하는 방식에서도 합의종결 내담자들은 조기종결 내담자보다 상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상담자의 상담유형과 상담년수에 따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

상담자의 상담유형에 따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

상담자의 상담유형에 따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상담자의 상담유형별로 내담자의 심리특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을 통한 개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네 가지 상담유형에 따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 가운데 상담동기 점수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인본주의($M=73.67$), 정신역동상담($M=56.92$), 절충주의 상담($M=54.33$), 행동주의($M=46.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상담유형에 따른 내담자의 자존감, 상담자 평가, 대인관계, 모호성에 대한 인내에 대한 평균점수의 변화는 최고($M=4.17$, 절충주의 상담 유형에 대한 상담자 평가 평균점수)에서 부터 최저($M=2.88$, 절충주의 상담유형에 대한 내담자의

표 3. 상담 유형에 따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일원 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상담유형	심리특성	n	M	SD	F	Scheffé 검증		
						정신역동	인본주의	행동주의
정신역동		28	56.92	12.80				
인본주의	상담	6	73.67	13.65				*
행동주의	동기	4	46.25	11.06	4.278*			
절충주의		3	54.33	12.74				
정신역동		28	3.30	.37				
인본주의	자존감	6	3.47	.29				
행동주의		4	3.41	.17				
절충주의		3	2.88	.82				
정신역동		28	3.52	.77				
인본주의	상담자	6	3.94	.53				
행동주의	평가	4	4.13	.50				
절충주의		3	4.17	.60				
정신역동		28	3.42	.57				
인본주의	대인	6	3.65	.73				
행동주의	관계	4	3.30	.42				
절충주의		3	3.74	.71				
정신역동	모호	28	3.35	.39				
인본주의	성애	6	3.08	.32				
행동주의	대한	4	3.37	.48				
절충주의	인내	3	3.33	.19				

주. 양방향 검증

* $p < .05$

자존감 평균점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점수들의 변화가 상담유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담자의 상담동기에서 네 가지 상담 유형간에 유의미한 차이($F=4.278, p<.05$)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증을 통

한 개별분석의 결과 네가지 상담유형 가운데 인본주의와 행동주의 상담유형이 상담의 동기 수준에서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인본주의와 행동주의 상담유형은 내담자의 상담동기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정신역동과 비정신역동의 상담유형에 따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

내담자	상담유형	심리특성	<i>n</i>	<i>M</i>	<i>SD</i>	<i>t</i>	<i>p</i>
조기종결 내담자 (<i>N</i> =42)	정신역동	상담동기	28	56.92	12.79	-.691	.494
	비정신역동		14	60.14	16.77		
	정신역동	자존감	28	3.30	.37	-.734	.467
	비정신역동		14	3.40	.57		
	정신역동	상담자 평가	28	3.51	.76	-2.454*	.019
	비정신역동		14	4.07	.48		
	정신역동	대인관계	28	3.42	.57	-.558	.580
	비정신역동		14	3.52	.61		
	정신역동	모호성에 대한 인내	28	3.35	.38	.754	.455
	비정신역동		14	3.25	.36		

주. 양방향 검증

**p*<.05

**정신역동과 비정신역동의 상담유형에 따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

정신역동과 비정신역동의 상담유형에 따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을 차이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담자에 대한 평가에서 정신역동 상담자(*M*=3.51)와 비정신역동 상담자(*M*=4.07)의 두 집단의 평균점수간에 유의미한 차이(*t*=-2.454,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조기종결 내담자들이 다른 유형의 상담자들 보다 정신역동 상담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 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자의 상담년수에 따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

상담자의 상담년수 수준(상담년수 4년 이상: 높음, 그 이하는 낮음)에 따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자

의 상담년수 수준에 따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에 대한 차이검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 가운데 상담동기에서 상담년수가 높은 집단(*M*=66.46)과 낮은 집단(*M*=53.71)의 두 집단의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t*=3.132, *p*<.01)가 있었다. 그리고 조기종결 내담자의 대인관계에서 상담년수가 높은 집단(*M*=3.66)과 낮은 집단(*M*=3.34)의 두 집단의 평균점수에서 강한 차이(*t*=1.798, *p*<.079)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상담자의 상담년수 수준이 조기종결한 내담자의 상담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내담자의 대인관계에도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기종결의 시점이 빨라지는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

조기종결의 시점이 빨라지는 조기종결 내담자

표 5. 상담자의 상담년수에 따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간 차이검증

내담자	상담년수	심리특성	<i>n</i>	<i>M</i>	<i>SD</i>	<i>t</i>	<i>p</i>
조기종결 내담자 (<i>N</i> =43)	상담년수 높음	상담동기	15	66.46	11.25	3.132**	.003
	상담년수 낮음		28	53.71	13.42		
	상담년수 높음	자존감	15	3.30	.50	-.382	.705
	상담년수 낮음		28	3.35	.40		
	상담년수 높음	상담자 평가	15	3.48	.89	-1.341	.187
	상담년수 낮음		28	3.79	.60		
	상담년수 높음	대인관계	15	3.66	.52	1.798	.079
	상담년수 낮음		28	3.34	.57		
	상담년수 높음	모호성에 대한 인내	15	3.35	.42	.263	.794
	상담년수 낮음		28	3.32	.36		

주. 양방향 검증

***p*<.01

의 심리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에 대한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기종결의 시점이 빨라지는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 가운데 상담동기에서 유의미한 차이(*t*=2.375, *p*<.05)가 있었으며 또한, 상담자에 대한 평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t*=3.608, *p*<.01)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조기종결한 내담자의 경우, 내담자의 상담동기가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와 내담자가 상담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상담을 종결하는 시점이 더욱더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기종결 내담자의 조기종결 이유

조기종결한 내담자의 조기종결 이유에 대한 자

표 6. 조기종결의 시점이 빨라지는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내담자	독립변인	<i>B</i>	<i>S.E.</i>	β	<i>t</i>	<i>p</i>
조기종결 내담자 (<i>N</i> =43)	상담동기	.019	.008	.328	2.375*	.023
	자존감	-.109	.281	-.058	-.388	.700
	상담자 평가	.595	.165	.525	3.608**	.001
	대인관계	-.070	.208	-.049	-.337	.738
	모호성에 대한 인내	.166	.301	.077	.550	.585
<i>R</i> ² = .331		Adj. <i>R</i> ² = .240				

주. **p*<.05 ***p*<.01

표 7. 조기종결 내담자의 조기종결 이유와 반응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조기종결의 이유	내담자의 반응분류	내담자의 반응유형		내담자 반응의 총 수	내담자 반응 비율
		전형적 반응	유사한 반응		
상담과정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 되었기 때문에	9	4	13	30.23(%)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의 불성실한 상담태도 때문에	5	2	7	16.28(%)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에	3	6	9	20.93(%)
	계			29	67.44(%)
상담환경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4	4	8	18.60(%)
	외부의 환경 변화 때문에	1	2	3	6.98(%)
	계			11	25.58(%)
기타	무반응	3		3	6.98(%)
	계			3	6.98(%)
전 체				43	100(%)

주. 전체 사례수 N=43

유기술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기종결의 이유를 세 가지 형태(상담과정, 상담환경, 기타)로 분류하고,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각각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 형태(전형적 반응, 유사한 반응)로 빈도와 백분율로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담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 때문에 조기종결한 이유는 첫째,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 되었기 때문(30.23%) 둘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20.93%), 그리고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의 불성실한 상담태도 때문(16.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담자가 비록 조기종결을 했지만 상담성고가 있었다고 보고한 비율은 전체 반응 비율의

30.2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불만(20.93%)과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의 불성실한 상담태도(16.28%) 등과 같이 상담성고가 없었기 때문에 조기종결한 내담자의 비율은 전체 반응 비율의 37.21%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조기종결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 상담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18.60%), 그리고 외부환경의 변화 때문(6.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시간이나 외부환경의 변화와 같은 상담환경의 변화 때문에 조기종결한 내담자의 비율은 전체 반응 비율의 25.58%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자의 특성과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의 종결 형태 예측, 합의종결한 내담자와 조기종결한 내담자들의 심리특성 비교, 상담자의 특성과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과의 관계, 조기종결의 시점이 빨라지는데 작용하는 내담자의 심리특성, 그리고 조기종결의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는 데 있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결과, 상담의 종결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내담자의 나이, 상담자의 상담 유형, 그리고 내담자에 의한 상담자 평가로 나타났다. 나이와 성별 어느 것도 조기종결과 관련이 없다는 선행 연구의 보고(Frayn, 1992)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나이 변인이 조기종결과 합의종결을 구분하는 예측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상담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Corazzini, 1997)을 지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상담의 종결형태를 예측하는 변인은 내담자에 의한 상담자 평가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상담자의 비언어적 행동, 해석, 전문성, 매력, 신뢰성, 상담유형, 학력수준, 상담이론, 상담년수, 성별과 나이 변인들이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Barak & LaCrosse, 1975). 상담자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상담동맹도 잘 이루어지며 상담의 동맹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성과도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상담종결의 형태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상담자의 나이, 성별, 학력 변인과 내담자의 성별 변인은 종결의 형태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결과에서 합의종결한 내담자들은 조기종결한 내담자들 보다 상담의 동기가

높았다. 조기종결한 내담자 20 사례와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담을 받았던 내담자 20 사례를 비교한 Frayn(1992)의 연구에서 조기종결한 내담자는 특수한 자아손상, 인내력, 충동 통제력, 상담동기가 낮은 내담자들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내담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탐색될 때 미성숙한 내담자들일수록 그들은 충동성 및 인내력이 낮아서 상담에 대한 동기가 저하될 것으로 본다(Frayn, 1992). 이것은 합의종결한 내담자 보다 조기종결한 내담자가 상담의 동기가 낮았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합의종결한 내담자들은 조기종결한 내담자들 보다 상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세 번째의 결과로, 상담자의 상담유형 가운데 정신역동적 상담을 구사하는 상담자와 비정신역동적 상담유형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에 대하여 조기종결한 내담자들은 상담자를 평가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나아가 상담자의 상담년수의 정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내담자의 상담동기 및 대인관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의 세 가지 하위 영역에 따라 살펴보았다.

1) 상담자의 상담유형에 따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 상담유형 가운데 인본주의 상담유형과 행동주의 상담유형은 조기종결한 내담자들의 상담동기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인본주의 접근의 상담자와 상담을 한 내담자들이 가장 높은 상담동기를 보이는 본 연구의 결과는 문제해결중심적인 대학생 내담자들의 특징을 감안할 때 상담초기에는 지지적인 인본주의 접근을 통해서 상담자-내담자의 상담동맹이 형성된 이후에 정신역동적 혹은 행동주의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조기종결을 감소시키고 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상담자의 상담유형중에 정신역동적 상담과 조기종결자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담유형과 조기종결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Wierzbicki & Pekarik, 1993)이기 때문에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신역동적 상담유형과 비정신역동 상담유형이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조기종결한 내담자들은 그들의 다섯 가지 심리특성 가운데 상담자에 대한 평가에서 정신역동적 상담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조기종결의 비율은 지지적상담보다 정신역동적 접근의 해석적 상담 형태에서 더 높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상담자의 해석과 갈등탐색의 과정에서 느끼는 내담자들의 불편한 정서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야기된 불편감은 조기종결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상담의 초기 시작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Piper et al., 1998). 실제로 정신역동적 상담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상담의 기술로써 해석, 아동기 감정양식의 조사, 문제의 원인에 대한 발생시점(on-set)의 조사, 발생시점을 중심으로 생겨난 감정적 태도의 확인과 탐색, 통찰을 위한 해석 등과 같은 장기상담을 근간으로 하는 상담자들에 대하여 내담자들은 이런 상담자들을 비밀을 캐내는 조사자로, 그리고 자신들의 영역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는 침해자로 볼 것이라고 하였다(Talmon, 1990).

3) 상담자의 상담년수에 따른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을 알아본 결과, 상담자의 상담년수가 높을수록(4년 이상) 그때 상담을 했던 조기종결 내담자의 상담동기와 대인관계가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자에 대한 평가에서 상담년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상담자의 상담년수는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에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관계형성이 내담자의 상담동기를 자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담년수가 높다는 것이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좋은 평가로는 직접 연결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Orlinsky와 Howard(1980)는 143명의 내담자에 대하여 상담성과를 측정한 결과 6년 이상의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가 상담의 효율성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6년 이상의 상담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가 상담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험년수가 낮은 상담자 보다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더 잘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

네 번째의 결과로, 조기종결의 시점이 빨라지는데 작용하는 조기종결 내담자의 심리특성은 상담자에 대한 평가 및 상담동기였다. 그러므로 상담자에 대한 평가가 좋고 상담동기가 높을수록 합의종결을 하였으며, 상담자에 대한 평가가 나쁘고 상담동기가 낮을수록 조기종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기종결 가운데에도 상담의 종결시점이 더욱더 빨라지는 이유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자 평가 요인과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의 상담동기 때문이었다. 조기종결이 상담의 실패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어느 정도로 수용할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담동기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자 스스로 내담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기종결의 구체적인 이유를 자유롭게 서술한 자유기술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결과, 조기종결한 내담자의 약 30%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의 해결과 상관없이 상담할 시간이 없었거나, 외부환경의 변화로 상담을 조기에 종결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전체 조기종결 내담자의 25.58%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상담할 시간이 없었던 경우는 18.60%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상담의 초기에 상담자는 상담시간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내담자와 충분히 이야기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50분 상담 형태를 30분간의 상담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대학생 내담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Tuner, Valtierra, Talken, Miller, & DeAnda, 1996), 자유기술문의 분석결과로 볼 때 대학상담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도 조기종결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37.30%) 나타났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불만 때문(20.93%)과 ②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의 불성실한 상담태도가 조기종결의 이유(16.28%)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상담자는 더욱더 유능한 상담자가 되기 위하여 조기종결과 상담실패의 관련성에 대한 숙고, 내담자의 다양한 심리특성 이해, 상담자로서의 전문적인 노력 등을 통하여 조기종결의 비율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들은 검사문항의 일부 분만이 사용되었으므로 연구가 다소 제한되었다. 그리고 모호성에 대한 인내 측정 검사는 내적일치도가 낮았다. 그렇지만 본 현장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조기종결의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담자가 상담교육을 많이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대학상담실의 상담자는 상담의 회기 수를 가능한한 짧게 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공적인 상담

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담자가 상담경험이 많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 김정희 (1992). 중년 여성의 적응과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정서적 경험의 관계: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4, 54-63.
- 오경희 (1986). 초기 상담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 전달이 내담자의 의도지각 및 상담의 효율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유경 (1996). 주관적 연령의 예측요인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재운 (1993). 환경변화지각에 있어서의 개인차 및 친숙도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6, 108-128.
- 최해림, 심홍섭 (1991). 생활상담실 활동보고. *인간이해*, 12, 서울: 서강대학교 생활상담연구소. 129-134.
- Acosta, F. X. (1980). Self-described reasons for premature termination of psychotherapy by Mexican-American, Black-American, and Anglo-American patients. *Psychological Reports*, 47, 435-443.
- Angle, S. S., & Goodyear, R. K. (1984). Perceptions of counselors' qualities: Impact of subjects' self-concepts, counselor gender, and counselor introduc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76-579.
- Backeland, F., & Lundwall, M. A. (1975). Dropping out of treatment: A critical review. *Psychological*

- Bulletin*, 82, 738-783.
- Barak, A., & LaCrosse, M. B. (1975). Multidimensional perception of counselor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471-476.
- Beck, N. C., Lamberti, J., Gamache, M., Lake, E. A., Fraps, C. L., McReynolds, W. T., Reaven, N., Heisler, G. H., & Dunn, J. (1987). Situational factors and behavioral self-predictions in the identification of clients at high risk to drop out of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3, 511-520.
- Bergin, A. E., & Garfield, S. L. (1994).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4th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Budman, S. H., & Gurman, A. S. (1988). *Theory and practice of brief 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under, S. (1962).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30, 29-50.
- Corazzini, J. G. (1997). Using research to determine the efficacy and modes of treatment in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Comment on Jobes, Jacogy, Cimbolic, and Hustead (1997) and Hayes (1997).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378-380.
- Corrigan, J. D., & Schmidt, L. D.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visions in the Counselor Rating For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64-75.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P. S.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07-918.
- Epperson, D. L. (1981). Counselor gender and early premature terminations from counsel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49-356.
- Frayn, D. H. (1992). Assessment factors associated with premature psychotherapy termin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6, 250-261.
- Garfield, S. L. (1990). Issues and methods in psychotherapy process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273-280.
- Heilbrun, A. B., Jr. (1982b). Tolerance for ambiguity in female clients: A further test of the catharsis model for predicting early counseling dropou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567-571.
- Hill, C. E., Thompson, B. J., Cogar, M. C., & Denman, D. W. (1993). Beneath the surface of long-term therapy: Therapist and client report of their own and each other's covert proces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278-287.
- Kahn, J. H., Kelly, A. E., & Coulter, R. G. (1996). Client self-presentations at intak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300-309.
- Luborsky, L., Barber, J., & Crits-Christoph, P. (1990). Theory-based research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281-287.
- Orlinsky, D. E. & Howard, K. L. (1980). Gender and psychotherapy. In A. M. Brodsky & R. T. Hare-Mustin (Eds.), *Woman and psychotherapy* (pp. 3-34). New York: Guilford.
- Orlinsky, D. E., Grawe, K., & Parks, B. K. (1994). Process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noch einmal. In A. E. Bergin & S. L. Garfield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4th ed., pp. 270-376). New York:

- Wiley.
- Pelletier, L. G., Tuson, K. M., & Haddad, N. K. (1997). Client motivation for therapy: A measure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for therap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8, 414-435.
- Piper, W. E., Joyce, A. S., McCallum, M., & Azim, H. F. A. (1998). Interpretive and supportive forms of psychotherapy and patient personality variable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558-56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tzman, C. (1984). Variables related to premature terminations in a university counseling service: A comment on Rodolfa, Rapaport, and Le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402-404.
- Sherbourne, C. D., & Stewart, A. L. (1991). The MOS social support survey. *Social Science Medicine*, 32, 705-714.
- Silverman, W. H., & Beech, R. P. (1979). Adolescent are dropouts, dropou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7, 236-242.
- Sue, S., Zane, N., & Young, K. (1994). Research on psychotherapy with culturally diverse populations. In A. E. Bergin & S. L. Garfield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4th ed., pp. 783-817). New York: Wiley.
- Talmon, M. (1990). *Single session therapy: Maximizing the effect of the first therapeutic encounter*. San Francisco: Jossey-Bass.
- Tuner, P. R., Valtierra, M., Talken, T. R., Miller, V. I., & DeAnda, J. R. (1996). Effect of session length on treatment outcome for college students in brief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228-232.
- Weiss, J., Sampson, H., & The Mount Zion Psychotherapy Research Group. (1986). *The psychoanalytic process: Theory, clinical observation, and empirical research*. New York: Guilford.
- Wierzbicki, M., & Pekarik, G. (1993). A meta-analysis of psychotherapy dropout.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4, 190-195.

원 고 접 수 일 : 2002. 6. 14
수정원고접수일 : 2002. 8. 29
게 재 결 정 일 : 2002. 9. 7

Counselor and Client Variables Related to the Premature Termination in Individual Counseling for the College Students

Ie-Hwan Ahn

Hae-Sook Sim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mature-terminated college clients and counselor variables in individual counseling. Ninety-three clients(50 premature-terminated clients and 43 clients who terminate counseling with agreement with counselors) and twenty-three counselo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ounseling style as characteristics of counselors and age as characteristics of client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types of termination. Second, The differences between premature-terminated clients and clients who terminate counseling with agreement with counselors were motivation of counseling and counselor evaluation by clients. Thir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maturely terminated client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counselors(2 types of counseling approach,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we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client response of counseling motivation, person-centered counseling and behavioral counseling were differently perceived by clients. 2) The premature-terminated clients evaluated the psychodynamically oriented psychotherapists negatively. 3) Client's motivation for counsel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counseling experiences. 4)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lients that could predict the acceleration of premature termination in counseling were counselor evaluation by clients and motivation for counseling. Finally, accorging to the free description sentence analysis, 30-40% of the premature-terminated college clients dropped out because problems are solved while the others dropped out because they were dissatisfied with the counselor and they didn't have time to see a counselor.

Key Words : premature termination, counseling style, motivation of counseling, counselor evaluation